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해 강숙여 권사님 가정과 선교팀에서 섬겼습니다. 떡 간식은 김경미 권사(신동기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장례에 대한 답례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한 2차 바자회는 6월 16일(주일)에 음식과 물품바자회를 가집니다.
3. 다음 주일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오진석 집사님입니다.
4. 지난 '아버지 주일'과 연계하여 '어르신 야외회'를 5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가집니다. 야외회 장소는 '이천 도자기 마을'입니다.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를 위한 모임이 주일오후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참가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6. 담임목사 동정 : 담임 목사님은 오후 3시에 있을 강복시찰 산하 길위에소리교회(서울 소재) 임직식에 참석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 담당 \ 날짜 | 5월 19일 | 5월 26일 | 6월 2일 | 6월 9일 |
|----------|----------------------|--------|--------------|--------------|
| 예배기도(2부) | 박성대 집사 | 오진석 집사 | 이준화 집사 | 김종영 집사 |
| 예배기도(오후) | 인도자 | | | |
| 식사담당 | 강숙여 권사 가정 필리핀 선교팀 | 가정의 주일 | 김도향 권사 가정 | 임명희 권사 가정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SUNDAY A.M WORSHIP 주일 낮예배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 |
|---------|-----|
| *예배로 부름 | 인도자 |
| *성시교독 | 다같이 |
| *경배찬송 | 다같이 |
| *참회기도 | 다같이 |
| *신앙고백 | 다같이 |

찬양과 기도

| | | |
|------|----------------|-----|
| 찬송 | 183장(통 172장) | 다같이 |
| 대표기도 | 1부인도자, 2부백성대집사 | |

봉헌과 말씀

| | | |
|-----------|---------------|--------|
| 성경봉독 | 요 2:1-11 | 인도자 |
| 자녀를 위한 기도 | 허영진 목사 | |
| 봉헌기도 | 인도자 | |
| 말씀선포 | ‘새로운 포도주의 기적’ | 허영진 목사 |
| 마무리기도 | 허영진 목사 | |

친교와 축복

| | | |
|---------------|------------|-------|
|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 |
| *결 단 송 | 620장 | 다 같 이 |
| *축 도 | 허영진 목사 | |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SUNDAY P.M WORSHIP 주일 오후예배

오후 1:30

인도 : 김진규 전도사

| | | |
|--------|------------|---------|
|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청년부 | 다같이 |
| 여는기도 | 인도자 | |
| 특별찬양 | 누구든지 | |
| 성경봉독 | 눅 19:11-27 | 김진규 전도사 |
| 말씀선포 | ‘한 므나’ | 김진규 전도사 |
| 기도 | 김진규 전도사 | |
| 교회소식 | 인도자 | |
| 결단찬송 | 비 준비하시니 | 다같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

WEEKLY WORSHIP 주중예배

| | | |
|----------------|---|--------|
| 수요예배 |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7:14-20 ‘믿음 앞에서’ | 허영진 목사 |
| 금요기도회 |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 허영진 목사 |
| 새벽기도회 (월~금) |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 허영진 목사 |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PASTOR'S COLUMN 목회자 칼럼

싱그러운 5월에

계절의 변화 속에 산하는 신록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교회 정원에는 신록에 연하여 붓꽃의 푸른 빛 도는 보랏빛이 조화를 이룹니다. 한 칸에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꽃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지난 시간의 분주함도 갈무리되어야 이 맘 때면 사뭇 진지함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때 없이 사는 우리야 마주하는 계절을 향해 ‘답다. 출다’라는 기준만 가지고 가늠하지만,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전혀 다르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듯 계절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만큼이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뒤덮고 있는 뜨거운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고,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셨고, 펼치셨던 다양한 하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고 퍼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퍼내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들에 주눅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퍼내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이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과 잇닿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햇살 같은 하늘의 이야기가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5월의 산하는 참 좋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